

## 국학원대학 21 세기 COE 프로그램

### 『신도와 일본문화의 국학적연구 발신의 거점형성』(Establishment of a National Learning Institute for the Dissemination of Research on Shinto and Japanese Culture)에 의한 주요한 사업과 성과.

국학원대학의 프로그램 『신도와 일본문화의 국학적연구 발신의 거점형성』은,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추진하는 21 세기 COE 프로그램에 인문과학(humanities) 분야에서 채택되었다. 2002 년도부터 2006 년도까지의 5 년간이 사업추진 기간이다. 프로그램 리더는 코바야시 타츠오(小林達雄)교수이고, 각 연도별로 20 명의 사업추진 담당자가 있다. 또 연구거점은 국학원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와 국학원대학 일본문화연구소이다. 프로그램을 실시해 가는 과정에서 조사 연구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었다. 그룹간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하에는 각각의 그룹이 실시한 사업 중에서 주요한 것에 대해서 그 개략을 소개하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이하를 포함한 COE 프로그램에 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영문 뉴스레터에 개요가 있다. 영문 뉴스레터는 PDF 로 파일화하여 웹상에도 공개되어 있다. (이하의 URL 참조) .

<http://21coe.kokugakuin.ac.jp/eng.html>

#### A. 제1 그룹

테마 「기층(基層)문화로서의 신도·일본문화의 연구」

제 1 그룹은 요시다 에이지(吉田恵二) 교수가 그룹 리더이고, 러시아의 일본해연안 조사, 중국소수민족 조사, 한국조사 및 국내조사를 실시했다.

##### a. 러시아연안 조사

코바야시 타츠오(小林達雄)교수·후지모토 츠요시(藤本強)교수를 중심으로, COE 연구원인 이토 신지(伊藤慎二), 그 외 많은 협력을 얻어서 러시아 연해지방(沿海地方) 국제공동학술발굴조사를 4 회 실시했다. 조사 및 조사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제 1 회 조사

조사지 : 러시아연방 연해지방 블라디보스토크시 미하이로스키지구

조사유적 : 오시노프카 유적, 고르바토카 유적

조사기간 : 2003 년 7 월 13 일~2003 년 7 월 17 일

###### 2. 제 2 회 조사

조사지 : 러시아연방 연해지방 미하이로스키지구 오시노프카마을 및 고르바토카마을

조사유적 : 오시노프카 유적, 고르바토카의 3 유적

조사기간 : 2003 년 8 월 3 일~8 월 24 일

###### 3. 제 3 회 조사

조사지 : 러시아연방 연해지방 카바레로프스키지구 우스치노프카마을

조사유적 : 우스치노프카의 8 유적

조사기간 : 2004 년 8 월 5 일~8 월 26 일

###### 4. 제 4 회 조사

조사지 : 러시아연방 연해지방 블라디보스토크시

방문처 : 국립극동대학(国立極東大学), 러시아과학아카데미극동지부(極東支部) 고고학 · 민족지학연구소(民族誌学研究所), 연해지방립박물관(沿岸地方立博物館)

조사기간 : 2005 년 9 월 20 일~9 월 25 일

이와 같은 조사에 의해서 얻어진 주요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시베리아 · 러시아극동지역의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시대, 동일본 특히 홋카이도(北海道)의 구석기시대부터 조몽시대조기(縄文時代早期)에 걸친 문화요소와의 유의성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그러한 토론을 근거로 러시아극동의 신석기문화와 일본의 조몽문화(縄文文化)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러시아연해지방 (Russian Maritime Region=Primorskii territory) 의 루도나야문화(Rudninskaya culture) · 자이사노프카문화(Zaisanovskaya culture)에 주목하고, 그 문화에 속하는 유적을 조사했다. 일본과 러시아극동의 선사문화와의 비교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양지역의 편년적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러시아극동의 신석기문화에 관한 대략의 편년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이번 조사성과를 토대로 러시아극동의 상세한 토기편년을 작성해서 러시아극동의 신석기문화와 일본열도 북부의 조몽문화와의 비교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편년을 토대로 양자를 비교검토한 결과, 홋카이도 조몽시대조기의 여만별식(女滿別式=Memambetsu type) 토기가 러시아연해지방 북부연안부 방면의 루도나야문화 고단계(古段階)와 관련성을 상정(想定)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조몽시대의 홋카이도 동부의 토기문화 등과 러시아극동과의 유의성이 지적되는 시기가, 아르르강하류지역 (Lower Amur River Basin) 의 영향에 의한 연해지방의 큰 문화적 재편기와 부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홋카이도 동부의 조몽문화와 러시아극동의 신석기문화는 생태환경과 그것에 대응한 생업의 공통성뿐만 아니라, 집락형태나 사람 · 동물을 표현한 유물 등에서도 일정한 유의성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볼 수 있다. 양자가 비슷한 정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연구에 의해, 일본의 조몽문화가 고립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극동에서 북일본이라는 환일본해지역간의 교류가 조몽문화에 일정하면서 중요한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일본기층문화로서의 조몽문화 형성에, 동북아시아적 문화의 특징이 적잖게 기여했었다는 것이다.

**b. 오카야마(岡山)의 분동형토제품(分銅形土製品) 조사**

이 조사는 요시다 에이지(吉田恵二)교수를 중심으로, COE 연구원인 가토 사토미(加藤里美), 야마조노 나나메(山添奈苗), 그 외 협력자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조사일과 조사지는 다음과 같다.

조사일 : 2003 년 9 월 23 일~9 월 28 일

조사지 : 오카야마시(岡山市)의 오카야마현고대키비문화재센터(岡山県 古代吉備文化財センター) , 소자시(総社市)의 소자시매장문화재학습관(総社市埋蔵文化財学習の館), 오카야마켄키비지향토관(岡山県立吉備路郷土館), 그 외.

이 조사에서는 오카야마현(岡山県)내에서 발굴된 128 점의 분동형토제품에 대해서, 특히 (1) 과단면의 상태 등의 잔존상태, (2) 시문(施文)내용과 제작기법의 다양성, (3) 천공부(穿孔部)의 상태, 이 3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그 형식학적인 변환을 명백하게 밝혔다. 야요이(弥生)시대를 대표하는 제구(祭具)인 청동기가 대륙계의 기술로 만들어진데 반해, 분동형토제품은 조몽시대 이래의 도자기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분동형토제품은, 동탁(銅鐸)문화권과 동검(銅劍)문화권이 겹치는 지역에서 출토된다. 여기서 분동형토제품은 단독으로 제사적 기능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청도제

제구와의 관계 속에서 기능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야요이(弥生)시대 이후, 대륙과 한반도와 같은 청동기제사가 일본에서 행해지게 되었지만, 대륙이나 한반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일본열도에서 전개된 제구가 분동형토제품이다.

### c. 다유경(多鈕鏡:ceremonial bronze mirrors)조사

이 조사는 스기야마 시게즈구(杉山林繼)교수를 중심으로 COE 연구원인 카토 사토미(加藤里美), 야마노노 나나에(山添奈苗) 그 외의 협력을 얻어 4 회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각각의 조사일, 조사지는 다음과 같다.

#### 1. 제 1 회 조사

조사일 : 2003 년 8 월 25 일~8 월 30 일

조사지 : 후쿠오카현(福岡県)의 후쿠오카시박물관(福岡市博物館), 오구리시매장문화재조사센터(小郡市埋蔵文化財調査センター), 그 외. 사가현(佐賀県)의 사가현립박물관(佐賀県立博物館), 사가시문화재자료관(佐賀市文化財資料館), 그 외.

#### 2. 제 2 회 조사

조사일 : 2004 년 8 월 21 일~8 월 24 일

조사지 : 한국의 국립부여박물관, 충청남도 공주군 송산리 고분군, 그 외.  
충청남도 부여군 송국리유적, 그 외.

#### 3. 제 3 회 조사

조사일 : 2005 년 8 월 17 일~8 월 23 일

조사지 :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송실대학교, 서울의 암사동유적전시관, 충청남도 아산시 남성리유적, 그 외. 논산시 인북리유적.

#### 4. 제 4 회 조사

조사일 : 2006 년 7 월 30 일~8 월 1 일

조사지 :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이 조사에서는 일본열도에 처음으로 도래한 청동제 거울인 다유경(多鈕鏡)의 제작공정과 사용상황의 상세한 검토를 통해서, 거울을 이용한 야요이제사의 실태 복원을 시도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각지에서 출토된 다유경은 100 개에 가깝다. 일본과 한국에서 발견된 35 개의 거울에 대해서, 그 제작·사용·폐기의 각 단계를 상세하게 검토했다. 한반도에서는 소문경(粗文鏡)에서 세문경(細文鏡)으로의 이동기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마멸(摩滅)상태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구식의 거울과, 마멸이 적은 신식(新式)의 거울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세문경에서는 그 대부분이 거울 등쪽면이 현저하게 마멸된 흔적이 있고, 매달아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나라현(奈良県) 고세시(御所市)의 나가라(名柄)유적에 매장되어있었던 거울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동탁(銅鐸)이 바로 가까운 곳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동탁과 함께 샤머니즘적인 제사행위 속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열도에 거울제사나 동탁제사의 기원은 한반도에서 찾을 수 있지만, 거울에 대한 인식과 거울에 기대한 역할은 그것을 사용한 개개의 사회구조에 따라서 다르다. 다유경(多鈕鏡)을 사용한 제사는, 은(殷)나라시대의 샤머니즘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그 전개나 변용, 혹은 거울의 물신화(物神化)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본 조사는 중요한 판단재료를 제공했다.

#### d. 중국소수민족·동(Dong)족 조사

이 조사는 타즈미 마사키(辰巳正明)교수, 오가와 나오유키(小川直之)교수를 중심으로 COE 연구원인 시로사키 유코(城崎陽子), 오호리 에이지(大堀英二), 그 외의 협력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일은 2004년 8월 27일~9월 7일, 조사지는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귀주성(貴州省) 양평현(黎平縣)이다.

이 조사는 일본의 신(神)관념을 동아시아의 종교문화적 풍토 속에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중국소수민족인 동족(벼농사농경민족)의 신관념과 제사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동족에게는 수목에 신이 깃든다는 신수(神樹)신앙이 보이고, 수목은 신이 깃드는 곳임과 동시에 집락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신수신앙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일대에 공통적으로 보인다. 동족에게는 자연신적 존재 이외에, 역사 전설상의 민족적인 인격신으로서의 샷사이(薩歲)가 존재한다. 샷사이는 여신이며, 이 신을 모시는 살단(薩壇)은, 제신의 연고지에서 돌 등을 가져와서 단을 만들고, 신이 깃드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수목을 심었다. 샷사이가 여신이라는 점에서 단상에 햇볕을 가리는 양산을 세우는 일이 있다. 또 샷사이는 민족적 영웅신이기 때문에, 숭경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 주위를 벽으로 둘러싸고, 지붕을 만들어서 당(堂: 薩堂)을 설치하는 사례가 다수 보였다. 샷사이는 인격신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자연신과 샷사이의 신관념의 차이점은, 제사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수제사에서는 희생의 피가 존경받지만, 샷사이제사의 경우에는 생전 샷사이가 싸워서 피를 흘렸다는 전승(傳承)으로 인해, 희생물을 바칠 때에는 피를 불길하게 여긴다. 동족의 제사, 특히 샷사이제사에서 신의 인격화에 따른 사전(社殿)의 성립이라는 과정이 상정된다. 이것은 일본의 신도와 신사건축의 성립을 생각할 때 참고가 된다.

#### e. 아오모리현(青森縣)의 무자(巫者)·무속(巫俗)의 조사

이 조사는 토요시마 히데노리(豊島秀範)교수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조사일은 2005년 11월 25일~28일, 2006년 5월 1일~4일이고, 조사지는 아오모리현 츠가루(津軽)·시모키타(下北)·남부(南部)의 세지역이다. 이 조사에서는, 1955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오소래잔(恐山)의 이타코(イタコ)마츠리에 참가한 시모키타, 남부의 모든 이타코의 참가실태가 명확해졌다. 이로 인해, 이타코의 존재가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타코가 격감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호토케(죽은사람의 영)를 불러내는 일을 맡고 있던 츠가루이타코를 대신해서 카미사마(신이나 부처 등을 불러내는 사람)가 호토케를 불러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타코는 사자(死者)·카미사마는 신(神)·호토케(仏) 등을 불러내는 분담은 없어졌다.

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